

【 해외금융뉴스: 복미 】

미 재무부, 생명보험사 구제금융 지원 동의

□ 미 재무부는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재무상태가 악화된 6개 대형 생명보험사에 대한 부실자산구제프로그램(TARP)의 지원에 동의함.

- 생명보험사에 대한 부실자산구제프로그램 지원 여부는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왔으며, 많은 보험사들이 지원 자격을 얻기 위한 조치를 취해왔음.
- 이번 지원규모는 22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, 지원대상은 하트포드(Hartford), 올스테이트(Allstate), 어메리프라이즈(Ameriprise), 링컨(Lincoln), 프린서펄(Principal), 푸르덴셜(Prudential)등 임.

□ 그러나 지원 대상에 포함된 몇몇 보험사들은 정부의 자금지원을 거부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으며 하트포드와 링컨만이 최종적으로 자금지원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됨.

- 어메리프라이즈는 이미 10억달러가 넘는 초과 자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실자산구제프로그램의 지원이 필요하지 않다는 성명을 발표했으며, 푸르덴셜 또한 정부의 지원을 거절할 것으로 관측됨.
- 올스테이는 현재 상황이 나아지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애매한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, 지난주 보통주 공모를 통해 10억 달러를 확보한 프린서펄은 정부 지원의 득실을 저울질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.

□ 정부지원을 거부하는 보험사들은 자금지원으로 인한 정부의 통제 강화와 소비자 불신 증가 등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.

- 보험사들은 부실자산구제프로그램에 참여한 은행들이 강화된 공적 감시와 경영진 보수에 대한 제약 등으로 또 다른 어려움에 직면하는 것을 지켜봤기 때문에 부실자산구제프로그램의 지원을 꺼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한 애널리스트는 주장함.
- 또한 보험사의 한 경영진은 부실자산구제프로그램 참여가 보험사 지급여력에 대한 우려를 증가시키고 보험상품 판매둔화를 지속시키는 등 오히려 역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힘.

(Wall Street Journal, 5/15, 5/19)